모든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

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다. 특히 추락, 낙하 등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는 항만 물류 산업에서 안전 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동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술과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 문화'를 구축하며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이

㈜동방

안전보건총괄팀

전사적 현장중심의 안전경영 활동

㈜동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부문 내 안전보건총괄팀을 신설하며 안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우남 부문장을 중심으로 4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총괄팀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전 지사 안전 점검, 이사회 보고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안전사고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중대재해처벌법·항만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의 실행과 개선, 신규 사업 및 고위험 작업의 리스크 관리 지원,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이다. ㈜동방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규 준수와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동방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 실현'이다. 이는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 가치로,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영 철학에 기반한다.

박우남 부문장은 "중대재해 ZERO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구현을 안전보건경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 전 철저한 TBM(작업 전 안전 미팅)과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전파, 작업장 사전점검 등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순찰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창기 사장님과 함께 반기별로 13개 전 지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DONGBANG
DONGBANG

최근 ㈜동방은 지사별 현장점검 기간을 기존 2박 3일에서 최대 4박 5일로 확대하고, 점검 관리 체크리스트를 보강해 더 많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의 안전 경각심 제고와 사고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담화문을 발송, 전사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총괄팀 이동규 팀장은 "정부가 산재를 '산재공화국' 문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저희도 이에 발맞춰 기존 활동에 더해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 표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십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방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의 즉각 중단과 작업 중지권 보장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관리자 누구나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안전보건 활동의 시작과 완성, 월간 안전활동 종합보고

㈜동방은 기존의 안전관리 활동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월간 안전활동 종합보고'다. 이 보고서는 안전보건총괄팀이 중심이 되어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안전 활동의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안전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또한, 개선 사항과 성과를 전 지사와 공유해 현장의 안전 의식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보다 훨씬 앞선 약 15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동방만의 오랜 경험과 체계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러한 노하우는 ㈜동방의 안전관리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박우남 부문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전 지사별 안전보건 활동을 수치화해 본사 차원에서 피드백, 확인, 점검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방의 모든 안전보건 활동은 '월간 안전활동 종합보고'에서 시작해 그 보고서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간 안전활동 종합보고는 ㈜동방의 안전문화를 이끄는 중심축이자, 전사적인 안전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또한, ㈜동방은 추락, 낙하 등 항만 하역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 CCTV다. 이 시스템은 작업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지역 접근 시 경고 알림을 보내고, 안전 장비 미착용 여부를 즉각 모니터링한다. 특히 현장 노동자가 비틀거리거나 행동이 둔화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동규 팀장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위험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며 AI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체계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동방은 월 3회 계층별 안전 화상회의, 분임조 우수경진대회,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있다.

백승엽 주임은 “직원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스터 공모전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하는 상생 협력

㈜동방은 안전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각 지사는 협회와 개별 계약을 통해 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직무 스트레스 검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협회와의 상생 관계는 단순한 위탁을 넘어, 보건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사적인 공모전을 함께 기획하는 등 능동적인 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함께 협업을 진행한 순우진 주임은 “협회와 의사소통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 삼행시 공모전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모전의 참여율을 50%까지 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동방은 앞으로도 항만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Mini Interview

“현장이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 만들 것”

㈜동방 안전보건부문 안전보건총괄팀

박 우 남

부문장

제가 입사했을 1996년 당시만 해도 사고 예방 활동이 형식적이었고, 사고가 나도 원인 분석이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당시 부산 지사에서만 연간 50건의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합니다.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원인을 따지고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율이 크게 줄어 무재해를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에게만 책임과 처벌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현장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